

OECD DAC 동향

(2013. 2. 15)

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

1. Development Issue

① High Level Panel on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 2차 회의

- '13. 1. 30 - 2. 1,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에서 개최
- 폐회 시 코뮈니케 발표

High Level Panel on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

(배경) Post-2015 빈곤감소 개발 아젠다의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지시로 2012년 7월 31일 발족하였으며, 세 차례 회의를 거쳐, 2013년 5월 UN에서 그 내용을 발표 예정

(공동의장) 데이비드 카메룬(영국 총리), 엘렌 존슨 설리프(라이베리아 대통령),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(인도네시아 대통령)

(1차회의) 2012년 10월 31일-11월 2일, 영국 런던
주요 의제는 개인과 가구(household)의 빈곤 문제, 빈곤 근절에서 투명성, 정의, 인간안보 문제 등

(2차회의) 2013년 1월 30일-2월 1일, 라이베리아 몬로비아

(3차회의) 2013년 3월 25일-27일, 인도네시아 발리 (예정)

- 코뮈니케 주요내용 요약
 - MDGs 달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
 - Post-2015 아젠다는 인간중심(people-centered)의 내용 추구
 - Post-2015 아젠다는 절대빈곤 근절 목표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, 사회적 평등, 환경 보전의 내용을 포함
 - *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거버넌스 향상, 부패 근절 등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

- * 특히 금융, 무역,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추구
- * 현재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천연자원 관리를 통해 부 창출
- * 녹색성장 정책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
- * 국적과 활동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협력하는 파트너십 형성
- 개발도상국의 고용 창출, 기반시설 구축, 생산성 향상, 경쟁력 제고,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
- 그러나 Post-2015 개발 의제 논의에 관하여 일부 비판적 시각도 존재*

- * 영국 Guardian지는 HLP 2차 회의를 앞두고 사설 'International development: big questions, small answers'(13.1.20)을 통해 Post-2015 개발 의제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
 - HLP 구성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상대적으로 논의 시간은 부족
 - 논의는 빈약하여 세계의 빈곤 동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관료적
 -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은 제각기 분절되었으며 관계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는 데 실패

2. DAC 회원국 동향

① 호주, 키리바시 기후변화적응사업 원조 예정 (2/11)

-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황폐화된 도로 등 기반 시설 복구 원조
 - * 키리바시는 해수면 상승 및 해수 침투 현상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추세라면 2030년 경 거주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South Tawara 지역 40km 도로 복원에 1500만 달러 투입
 -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해 파괴된 11km 상수도관 복구 (Kiribati Adaptation Program)
- WB/ADB와의 파트너십 통해 3년 간 (2013-15) 원조 예정
- 키리바시 전체 인구의 40%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

Kiribati Adaptation Program

- 키리바시 정부에서 발족한 기후변화적응 이니셔티브
 - GEF(Global Environment Facility), World Bank, UNDP, 일본 정부에서 지원 (550만 달러)
 - 호주는 후발 참여 (150만 달러)
- 준비(2003-2005), 시범시행(2006-2010), 확대시행(2010-2015)의 세 단계로 나누어 시행
- 4대 위기 분야 선정
 - 수자원 공급 및 관리 (특히 Tarawa 지역)
 - 맹그로브 조림지 형성 등 해안 관리
 -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법안 제정
 - 인구 주거 계획 확립

② 캐나다(CIDA), '민간 주도의 국제개발'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(2/11)

- Julian Fantino 국제협력장관, Lois Brown 국제협력정무차관, Gerald Keddy 국제무역정무차관 공동주재
- 캐나다 Aga Khan 재단* CEO, 캐나다 DID(Développement international Desjardins)** CEO 등 참석
 - *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가칸개발네트워킹 산하기관
 - ** 캐나다의 금융협동조합기업 Desjardins 그룹에서 설립하였으며, micro-finance 분야의 선두주자
- 캐나다 정부는 '12. 11월 국제관계·국제개발 상임위원회에서 *Driving Inclusive Economic Growth: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*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민간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
- 상업적 목적과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모색



③ 미국(USAID), 엘살바도르에서 사상 최대 공공-민간협력* 계약 체결 (2/13)

- * 공공-민간협력(Public-Private Cooperation:PPC)이란 전통적인 민관협력(Public-Private Partnership:PPP)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,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칭
- USAID와 5개 엘살바도르 국내 기업 간 50개 우범지역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한 PPC 계약 체결
- 현지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 중 USAID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중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
- USAID의 **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(CARSI)**의 일환으로 5년 간 4200만 달러 투입
 - 지역 내 분쟁(conflict) 방지 훈련 실시, 폭력 심화 학교 대상 심리치료 제공, 기업들의 사회적 투자 증대 유도 등

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

- 중남미 지역의 마약 밀매, 화기 사용, 범죄 증가 및 갱(gang)단 확대 등 급격한 치안 약화에 대응하여 2008년 美 국무부 주도로 출범
- 4억 9600만 달러 투입
- 5대 목표
 -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제공
 - 역내 범법자의 국경 이동 및 밀수품 교환 금지
 -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조성
 - 비상 시 국가의 존재감 및 영향력 확립
 - 증진된 안보와 법에 의한 지배 확립

3. OECD/DAC 주요 일정 (2/11-3/1)

	<p>GOVNET* Technical Review Meeting 개최 (의제) Illicit financial flows report** 등</p> <p>* DAC Network on Governance ** 955차 DAC 정례회의에서 SLM(고위관리회의) 의제로 제안됨</p>
	<p>956th DAC Meeting 개최 (의제) DAC 통계지침 상 양허성 수준(Concessional in Character)의 의미*, EU의 DAC 내 법적 지위** 등</p> <p>* 지침은 “Concessional in Character”를 “시장금리보다 양호한 수준”이라고 명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자체로 적격인지, 그와 동시에 Subsidy를 통해 그 차이를 보전 받아야 하는지 회원국 간 의견이 분분 - 2015년까지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기로 결정 <p>** 양허성 수준 관련하여, EU는 DAC이 EIB 차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U의 국가로서의 (법적) 지위에 대한 문안을 통계지침에 삽입하도록 요청